

슈퍼사이클 조선업계, 기술개발·투자 등 외형 확장 잔걸음

공격수주 K조선, 올해도 흑자 기대
생산량 극대화 수익성 확보 속도

HD현대 군산조선소 5년만에 가동
현대삼호중, 돌핀 안벽 추가 설치
대우조선해양, 자율운항시험 성공
삼성중도 목포해양대와 실증실험



현대삼호중공업 야드 전경.

국내 조선업계가 10년만에 찾아온 '슈퍼사이클'을 맞아 생산량 확보를 위해 외형 확장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주 불황이 이어지면서 생존 위기에 처했던 조선업계는 2년여전부터 이어진 수주밸리로 생산 물량을 대거 확보하면서 올해 흑자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를 기회 삼아 다양한 투자를 통한 경쟁력 확보로 수익성 확보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조선3사(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올해 모두 별 탈 없이 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조선해양은 197척, 239억5000만 달러어치를 수주해 연간 수주 목표의

137.3%를 달성했다. 20억 달러를 수주한 삼성중공업은 8년간의 지속된 적자에서 탈피해 흑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 일감도 지난해보다 67% 증가했다. 현재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한 조선업계는 올해도 공격적인 수주를 이어가며 반등에 나서고 있다.

특히 조선업계는 상승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외형 확장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우선 조선업 불황 여파로 가동을 멈췄던 HD현대 군산조선소가 지난해 10

월 5년여만에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는 국내 조선업계 부흥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 2010년 준공된 군산조선소는 장기간의 조선업 불황으로 2017년 가동이 잠정 중단됐다. 하지만 조선업 경기가 차츰 회복세를 띠는 등 선박 수주가 급증하면서, 가동 중단 5년 만인 지난해 10월 재가동에 들어갔다. 군산조선소에선 이날 컨테이너반선용 112톤급 블록 2개를 바지선에 실어 현대중공업 본사가 위치한 울산으로 보냈다. 이 블록

은 울산에서 1만5600TEU(1TEU는 20 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을 건조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군산조선소에서 올해 약 10만 톤의 선박 블록 생산이 예정됐다. 이에 1800억원 상당의 매출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대중공업은 현재 500여명 규모의 생산인력을 지속 증원해 1000명 수준까지 확대에 나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있다.

한국조선해양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도 10년만에 돌핀(dolphin)안벽 추가 설치하며 생산량 극대화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올해 수주 목표액인 26억달러를 일찌감치 넘기는 35억 달러를 달성했다. 특히 대부분 수주 물량이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 친환경 선박이라는 점에서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조선3사는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는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조선3사 중 가장 앞선 기술을 자랑하는 HD현대는 자율운항 전문 선박 자회사 아비커스를 통해 자율운항 선박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지난달 19일에는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린 세계 최대 보트쇼에 참가해 관람객 10만여명을 대상으로 레저보트 자율운항 솔루션 '뉴보트'의 베타테스터 참가자를 모집했다. HD현대는 뉴보트 기술을 적용한 선박으로 글로벌 레저보트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1월 자율운항선박 해상 시험에 성공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시흥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와 자율운항 기술 개발과 실증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자율운항 시험선 '단비(DAN-V)'를 건조해 관련 테스트를 진행해 왔다.

삼성중공업도 목포해양대학교와 손잡고 기술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목포해양대학교와 지난해 11월 15일~18일까지 실습선 세계로호로 한반도 최서단(가거도)~최남단(이어도)~최동단(독도)을 항해하는 약 1000마일(약 1852km)의 자율운항 실증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과정에서 항해 중인 다른 선박과 마주친 29번의 충돌 위험 상황을 안전하게 회피하는데 성공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전자, 친환경 냉매 적용 EHS 첫 공개

獨 냉난방공조전시회 2023
'EHS 모노 R290' 온난화지수 3
에너지 관리 스마트싱스도 선보

삼성전자가 유럽에 지속가능한 공조 솔루션을 소개한다.

삼성전자는 13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막한 냉난방공조전시회 ISH2023에 처음 참가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489㎡ 규모 전시장에 고효율 냉난방 시스템인 히트펌프 'EHS' 신제품을 선보인다. 에너지 공급난에 친환경 방침으로 현지에서 관심이 높아진 EHS는 보일러보다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적으면서 냉난방과 온수 공급까지 가능한 솔루션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처음으로 자연 냉매인 R290을 적용한 EHS 모노 R290을 소개한다. R290은 오존층 파괴지수가 0, 지구 온난화지수(GWP)가 3에 불과하



삼성전자는 13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막한 냉난방공조전시회 ISH2023에 처음 참가한다.

다. 에너지 효율도 높고 최대 75도 고온수 공급도 가능하다.

EHS 모노 HT 콤파어트는 저소음 기술을 적용했다. 최저 35dB 수준으로 콤파어트 마크 인증을 획득했다. 영하 25도 극한에서도 완전한 난방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성능과 디자인, 지속가능성까지 인정받아 디자인 플러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에너지를 관리

하고 다른 가전들과 연동할 수 있는 스마트싱스 에너지 서비스도 전시한다. 벽걸이형과 1웨이·4웨이 카세트형 무풍에어컨 라인업도 함께다.

최영준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상무는 "ISH 2023 냉난방 공조전시회에서 선보인 차별화된 제품을 비롯해 앞으로도 친환경, 고효율 냉매가 적용된 EHS 제품으로 유럽 냉난방 시장 공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SK케미칼, 친환경 화장품 용기시장 공략

한국콜마 자회사 연우와 손잡고
재활용 용기 개발·상업화 추진

SK케미칼이 국내 화장품용기 시장 점유율 1위 연우와 손잡고 친환경 용기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SK케미칼과 연우는 국내외 플라스틱 규제 강화로 친환경 화장품 용기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용기 개발 및 상업화를 추진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케미칼은 화학적 재활용 소재인 '에코트리아(ECOTRIA) C R'과 소비자 사용후 페트(PET)로 재활용이 가능한 '에코젠 클라로(ECOZEN Claro)'를 공급하고, 연우는 이를 활용

해 다양한 친환경 고무명 화장품 용기를 개발해 생산하는 등 협력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양사는 글로벌 화장품 고객사에 친환경 용기 공급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1994년 설립된 연우는 국내 화장품 용기 시장 점유율 1위의 종합포장재 전문기업으로 지난해 한국콜마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SK케미칼은 2021년 세계 최초로 화학적 재활용 코폴리에스터를 상용화했고, 지난 6일에는 세계 최대 규모인 중국 슈에(Shyue)사의 화학적 재활용 원료 및 제품 공장을 인수하는 등 친환경 소재시장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이번 협업을 통해 양사는 글로벌 친환경 화장품 용기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복안이다.

/허정윤 기자 zekova@

LG 트롬 워시타워, 일체형 세탁건조기 선도

글로벌 시장 40% 이상 성장

LG 트롬 워시타워(사진)가 원바디 세탁건조기 시장을 성공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19kg 이상 트롬 세탁기 구매자 중 절반 이상이 워시타워를 선택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형 세탁기 소비자들 사이에서 건조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워시타워를 선택한 것. 워시타워는 지난해까지 매년 30%에 달하는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난해 2021년 대비 40% 이상 성장하며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워시타워가 일체형 세탁건조기 대명사로 자리잡았다는 게 LG전자 분석이다.

인기 비결은 디자인과 편리함에 있었



다. LG전자는 외부 컨설팅 기관을 통해 워시타워 구매고객 150명을 대상으로 워시타워 구매사유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체감 디자인' 때문에 구매했다는 고객이 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김재용 기자

'갤럭시 탭 S8+', 알츠하이머 디지털 진단 돕는다

삼성전자-보트뉴로 공동연구 진행
신경자극기 제어·데이터 전송 활용

삼성전자 태블릿 '갤럭시 탭 S8+ 엔터프라이즈 에디션(갤럭시 탭 S8+)'이 알츠하이머 질환의 디지털 진단에 사용된다.

삼성전자 스위스 법인은 최근 현지 의료기술 전문 스타트업인 '보트뉴로(Bottneuro AG)'와 공동으로 갤럭시 탭 S8+를 활용해 '알츠하이머 진단 솔

루션 개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보트뉴로는 3D MRI(자기공명영상) 및 PET(양전자 단층촬영) 데이터를 통해 병증이 발생한 뇌 영역을 식별한 뒤 자체 개발한 신경자극기 '미아마인드(Miamind)'로 전기 표적 치료를 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공동연구에서는 삼성전자가 보트뉴로에 공급하기 위해 맞춤형으로 제작한 갤럭시 탭 S8+가 신경자극기를 제어하는 동시에 치료 데이터를 전송하

는데 활용됐다.

환자들이 갤럭시 탭을 활용해 직접 간편하게 의료기기를 조작하게 함으로써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치매 환자의 경우 발병 초기 단계부터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아 보트뉴로는 환자들이 신경자극기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왔는데, 갤럭시 탭 S8+가 해법이 된 셈이다.

/허정윤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